

美 연준 이사 “필요하면 기준금리 올릴수도” 발언에

전문가 “가능성 전혀 없다” 일축

美 인플레이션에 ‘인상’ 시사

“완화 기조에 균형 맞추는 발언 예상했던 인하 수순 가고있어”

“韓 13일 금통위서 동결전망 우세 금리인하 빨라야 8월 이뤄질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지난 5일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미래의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성을 계속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상승 위험을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빨리 정책을 완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빨리 정책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우먼은 연준 이사회 멤버이자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상임 투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올해 2회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회복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내 물가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는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3.1%)를 소폭 웃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3월 CPI 예상치는 3.5%로 지난해 9월(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3월 CPI는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하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광 레그넬투자자문 대표는 “불과 얼마 전 파월 의장이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발언을 했고, 연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중앙은행의 확실한 스탠스가 있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며 시장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지난해 시장에서 올해 최대 여섯 차례 금리 인하의 기대까지 나올 때도 우리는 미국은 6월까지 금리인하를 한두 차례 최대 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달 FOMC 이후 인터뷰에서 “최근의 데이터는 전체적인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견조한 성장, 강력하지만 균형을 재조정하는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이끌고 있다”며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연 3.50%)를 10연속 동결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통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겠지만, 2월과 비교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일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2%로 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빨라야 오는 8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네트워크 보드 등 매출 큰 폭 성장 기대”

metro 관심종목 두산

목표주가 최대 20만원까지 상향
자회사 지분 일부 주주환원 할수도

수년간 투자자들의 선호에서 소외됐던 두산이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급등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승 동력이 남았으며 목표주가를 줄지어 상향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의 주가는 3월 이후 약 55.82%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4일에는 7.03% 상승했지만, 3월 마지막 거래일(15만5500원)보다는 8.81% 하락하면서 주춤세를 보였다.

지난 4일 보인 두산의 강세는 증권사 전망에 따라 움푹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두산 전자BG(비즈니스그룹) 사업 부문의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46%나 상향 조정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의 전자BG사업부문은 CCL, FCCL이 주력 사업부문인데 이중 네트워크 보드(Network Board)와 반도체용 CCL

매출이 2024~2025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네트워크보드용 CCL 매출은 전체 CCL 매출액의 약 6~7%였지만, 2024~2025년에는 그 비중이 약 20~3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원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체사업에서 전자BG는 절대적이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출의 경우 70% 초중반, 영업이익은 80%를 넘기도 했었다”며 “올해는 실적 지지 효과와 더불어 사업환경 개선이 매출처 다변화로 이어져 실적 모멘텀이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42.85% 올랐다.

상장 자회사의 지분 일부가 신성장 동력 또는 주주환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의 지난해 상장 이후 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보호예수 해제 후 두산이 일부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밸류업에 부응하는 미래성장전략 제시, 자본효율 개선, 주주환원 강화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도 목표가를 14만원에서 19만원(35.71%)으로 상향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인 싸게 팔아요” 가짜코인 판매 주의보

금감원 “투자금 편취 사기 횡행
개인거래, 지급사이트 의심해야”

7일 금융감독원은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나 싼값으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국내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가짜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급사이트를 이용할



ChatGPT의 DALL·E 기능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지급 화면’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이 제시한 사이트 화면에서 자산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급주소가 없거나 별도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지급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정윤 기자 zekova@

2차전지 ETF 수익률 줄줄이 하락세

“지금이 바닥?” 저점 매수 나선 개미들

테슬라, 4년만에 첫 역성장 기록
삼성SDI, 1분기 영업익 전망 35% ↓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
한달새 130억 등 관련 ETF 매수세



/유토이미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인식 아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Fn’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1.06%로 나타났다. SOL 2차전지소부장Fn, TIGER 2차전지소재Fn ETF 등도 각각 -8.74%, -8.11%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KBSTAR 2차전지TOP10 ETF(-5.35%), KODEX 2차전지 산업 ETF(-4.87%), ‘TIGER 2차전지TOP10ETF(-2.05%) 등이 약세를 보였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10.26%), TIGER 2차전지 TOP10레버리지 ETF(-6.07%) 등도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난 한 달 사이 개인들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

리지 ETF를 298억원, TIGER 2차전지 TOP10레버리지 ETF를 약 130억원 순매수했다. 또 TIGER 2차전지TOP10 ETF(107억원), TIGER 2차전지소재Fn ETF(29억원), SOL 2차전지소부장Fn ETF(28억원) 등을 사들였다.

2차전지관련 EFT의 하락세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완성차 및 2차전지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8만68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야디도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30만114대에 그치면서 직전 분기 대비 42% 급감했다.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57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2% 줄었다. 다른 국내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ETF의 반등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에 대해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인도량에서 드러난 전기차(EV) 성장 둔화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경쟁 심화, 정책 불확실성, 잔존가치 하락 등이 원인”이라며 “결국 가격,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이 일부 해소되는 하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여전히 미국 대선, 유럽 의회 선거,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최근 리튬 가격 하락 중단 및 경쟁적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하스,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절차 본격화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전문기업 하스는 코스닥 상장 절차 본격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스는 이번 상장에서 181만 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단 기준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17억원이다.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 코스닥 시장

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2008년 설립된 하스는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철수복 소재 전문 기업이다.

하스는 지난해 약 160억 원의 매출액과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중 약 92%는 해외 매출 비중으로 하스는 133개 파트너사를 통해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등 다각적인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